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0. 30 | 통권 제32호(2012-20)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

[요약]

- 오랜 시간 동안 여성 취업자의 1/3 이상을 차지해오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취업자 전체에서 사회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음.
- 여성 사회복지업의 두드러진 증가에 힘입어 여성 사회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함.
-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을 세부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건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비교적 평균연령이 낮은 반면, 공공행정서비스업과 사회복지업은 50세 이상의 고령 여성취업자가 많았음. 그리고 공공행정서비스업을 제외한 사회서비스업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중이 높음.
- 보건업을 제외한 사회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에 가깝거나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복지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업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80% 수준에 그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42.4%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사회서비스업 대부분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준보다 대체로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임.
-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선진국의 예에서 여성 사회서비스업 비중과 높은 고용률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이고 있음.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업의 확대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사회서비스 부문으로의 여성고용 확장

- 제9차 표준산업분류를 따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을 사회서비스업으로 정의함.
- 오랜 시간 동안 여성 취업자의 1/3 이상을 차지해오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표 1 참조).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이 크게 증가해 2005년 471천 명이던 취업자가 2012년 상반기 1,127천 명 규모로 크게 증가했고,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11.1%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특히 사회복지업의 증가가 두드러짐(표 2 참조). 10% 미만 증가율을 보이는 보건업과 달리 사회복지업은 2009년 59%, 2010년 46%, 2011년 24.9%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업(O), 교육서비스업(P)은 소폭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여성 취업자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1〉 여성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취업자					증 감					비 중				
	2005	2007	2009	2011	2012 상반기	2005	2007	2009	2011	2012 상반기	2005	2007	2009	2011	2012 상반기
전체	9,526	9,826	9,772	10,091	10,186	162	120	-102	177	209	100.0	100.0	100.0	100.0	100.0
A	850	812	738	683	615	-16	-26	-45	0	-21	8.9	8.3	7.6	6.8	6.0
B	1	1	2	1	2	0	-1	0	0	1	0.0	0.0	0.0	0.0	0.0
C	1,371	1,307	1,160	1,273	1,252	-78	-17	-110	36	-31	14.4	13.3	11.9	12.6	12.3
D	13	19	15	13	11	0	3	-2	1	-2	0.1	0.2	0.2	0.1	0.1
E	7	11	8	12	12	2	0	-1	3	0	0.1	0.1	0.1	0.1	0.1
F	158	172	163	156	149	-3	6	-12	-10	-7	1.7	1.8	1.7	1.5	1.5
G	1,754	1,677	1,632	1,610	1,630	-40	-44	-35	-24	22	18.4	17.1	16.7	16.0	16.0
H	101	97	94	119	128	12	-2	-1	10	12	1.1	1.0	1.0	1.2	1.3
I	1,419	1,416	1,294	1,221	1,239	-2	1	-102	-27	19	14.9	14.4	13.2	12.1	12.2
J	206	177	179	184	181	19	-24	11	6	1	2.2	1.8	1.8	1.8	1.8
K	376	419	382	425	438	2	15	-32	34	22	3.9	4.3	3.9	4.2	4.3
L	157	171	176	177	173	18	6	7	2	-3	1.6	1.7	1.8	1.8	1.7
M	190	234	262	283	288	17	18	0	8	14	2.0	2.4	2.7	2.8	2.8
N	300	394	407	482	499	43	54	1	43	21	3.1	4.0	4.2	4.8	4.9
O	239	254	370	329	329	26	-6	108	-21	5	2.5	2.6	3.8	3.3	3.2
P	1,058	1,162	1,233	1,139	1,177	53	21	42	-70	48	11.1	11.8	12.6	11.3	11.6
Q	471	542	774	1,063	1,127	54	40	140	140	83	4.9	5.5	7.9	10.5	11.1
R	159	149	157	177	167	24	-1	-10	25	-13	1.7	1.5	1.6	1.8	1.6
S	565	653	583	595	608	29	54	-56	19	25	5.9	6.6	6.0	5.9	6.0
T	126	157	140	147	161	5	22	-5	4	17	1.3	1.6	1.4	1.5	1.6
U	6	3	3	4	3	-1	-2	0	1	-2	0.1	0.0	0.0	0.0	0.0

주 : 1) 제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임.

2) A:농림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E:하수·폐기물, 환경 등, F:건설업, G:도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 등,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임대업, M: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N: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P:교육서비스업, Q: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스포츠·여가, S:기타개인서비스업, T:가구내서비스 등, U:국제기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여성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의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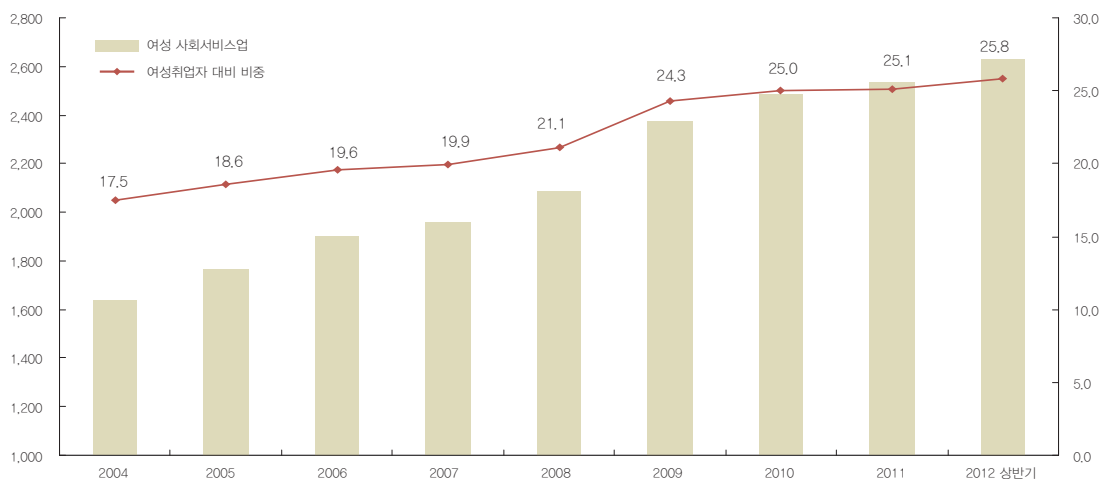
(단위:천 명, %)

	규모			증가율		
	보건 및 사회복지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634	451	183			
2009	774	484	291	22.1	7.3	59.0
2010	923	498	425	19.3	2.9	46.0
2011	1,063	533	531	15.2	7.0	24.9

주 :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여성 사회서비스업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여성 취업자 전체에서 사회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04년 17.5%에서 2012년 상반기 25.8%를 기록함(그림 1 참조). 이는 여성 취업자 전체의 25%를 넘는 수준임.
 -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상반기 64.6%를 기록함.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연령

- 여성 사회서비스업 세부산업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11년 공공행정서비스의 평균연령이 44.4

세로 가장 높은 반면, 보건업이 34.3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표 3 참조).

- 보건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비교적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15~39세 비율에서 보건업이 69.6%, 교육서비스업이 62.6%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업은 40대 이상의 연령 비중이 각각 56%, 58%가 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중이 16.4%로 고연령 여성 취업자가 많음.

- 최근 빠르게 증가한 여성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전 연령대에서 모두 크게 증가함. 특히 2009년은 50세 이상에서 두 배가량 증가해 두드러졌

〈표 3〉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연령 구성(2011년)

(단위:세, %)

	평균연령	연령대 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43.9	20.3	20.8	26.8	20.3	11.8
공공행정서비스	44.4	14.3	29.5	24.6	15.2	16.4
교육서비스업	36.4	28.6	34.0	27.9	8.3	1.1
보건업	34.3	42.6	27.0	20.6	8.3	1.5
사회복지업	42.3	20.6	21.3	28.9	20.4	8.9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 여성 사회복지업의 연령별 취업자 구성

(단위:천 명, %)

	2008	2009	2010	2011
여성 사회복지업	183	291 (58.2)	425 (46.4)	531 (24.4)
15~29세	39	46 (17.9)	77 (67.4)	109 (41.6)
30~39세	44	72 (63.6)	96 (33.3)	113 (17.7)
40~49세	60	90 (50.0)	125 (38.9)	153 (22.4)
50~59세	27	56 (107.4)	83 (48.2)	108 (30.1)
60세 이상	14	27 (92.9)	45 (66.7)	47 (4.4)

주 :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학력 구성(2011년)

(단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 취업자	100.0	25.9	38.8	13.4	21.9
공공행정서비스	100.0	22.2	26.7	12.8	38.3
교육서비스업	100.0	2.8	19.0	13.3	64.9
보건업	100.0	4.5	32.1	39.6	23.8
사회복지업	100.0	16.6	33.0	26.9	2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 2010년 이후 15~29세, 30대의 연령대가 증가함(표 4 참조).

임. 공공행정서비스는 학력 구성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졸 이상이 38.3%인 동시에 중졸 이하도 22.2%를 구성함.

학력 구성

- 여성 사회서비스업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산업의 특성상 대졸 이상 학력 비중이 60% 이상 높은 반면, 고졸 이하 저학력의 비중은 낮은 수준을 보임.
 - 사회복지업은 전문대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에서 33%의 비중을 보

고용형태

- 보건업을 제외한 사회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공공행정서비스의 비정규직 비중은 49.0%로 여성 전체의 비정규직(42.8)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45.6%)와 시간제(27.2%)가 대부분임.

- 교육서비스업은 기간제(27.6%), 시간제(21.3%), 특수고용(7.7%) 비중이 두드러짐.
- 보건업의 경우 2011년 8월 21.2%가 비정규직이고, 78.8%가 정규직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음.
- 사회복지업은 보건업과 반대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여성 사회복지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 특히 기간제(37.2%), 시간제(29.7%) 파견근로(3.5%)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근속기간

- 사회복지업을 제외한 공공행정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은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2008년 이후 증가함.
- 신규진입으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 근속자는 공공행정서비스와 사회복지업에서 증가함.

임금과 저임금

-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상대임금(여성 임금근로자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

〈표 6〉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2011년 8월)

(단위: %)

	전체 임금근로		여성 임금근로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임금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5.8	57.2	51.0	53.2	78.8	43.9
비정규직	34.2	42.8	49.0	46.8	21.2	56.1
한시근로	19.7	24.1	46.7	31.2	18.5	42.0
기간제	15.2	18.8	45.6	27.6	14.9	37.2
계속고용	1.9	2.0	0.8	2.1	2.9	3.5
기대불가	2.5	3.3	0.3	1.4	0.8	1.5
비전형	13.9	15.7	1.4	8.2	0.6	4.6
파견	1.1	1.4	0.8	0.4	0.2	3.5
용역	3.8	4.0	0.0	0.1	0.2	0.4
특고	3.5	5.6	0.0	7.7	0.0	0.0
가내	0.4	0.9	0.0	0.1	0.0	0.2
호출	5.5	4.5	0.6	0.0	0.2	0.8
시간제	9.7	16.5	27.2	21.3	3.3	29.7

자료 : 통계청(2011.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7〉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근속기간(2008, 2011년)

(단위: %)

	여성 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미만	28.9	28.8	30.5	37.4	23.1	22.8	30.8	30.2	38.5	41.2
1~2년 미만	12.2	12.5	13.0	6.7	12.4	12.0	17.9	15.9	19.8	21.0
2~3년 미만	6.9	6.9	9.2	6.1	8.1	7.2	12.4	11.3	7.7	11.2
3년 이상	52.0	51.8	47.3	49.8	56.5	57.9	38.9	42.6	34.1	26.7

주 :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간당 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사회복지업은 80%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줌.

- 교육서비스와 사회복지업의 상대임금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보건업의 상대비중은 소폭,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또 공공행정서비스의 비정규직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던 2009년 상대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감.

■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저임금 비중은 2012년 3월 기준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서비스의 저임금 비중은 높은 수준인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은 낮은 수준을 보임.

- 교육서비스업은 2004~2012년 사이 큰 변화 없이 15~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업은 2008~2012년 등락을 반복하지만 20%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냄.
- 반면 사회복지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여

성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업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음.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 사회서비스업 대부분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은 가입률과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 특히 보건업의 경우 취업자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복지 수혜율도 여성 임금근로자나 다른 사회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공공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여성 전체 임금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사회복지업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나타내지만,

〈표 8〉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의 상대수준 추이

(단위: %)

	여성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100.0	129.5	140.6	121.9	89.1
2009	100.0	103.4	144.6	120.1	81.9
2010	100.0	116.1	139.6	118.9	83.6
2011	100.0	118.5	141.9	113.7	83.9
2012.3	100.0	124.6	142.9	112.6	81.8

주 : 1) 시간당임금=월평균임금/(평소1주당근로시간×368/84)
 2) 각 연도 여성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의 상대임금임.
 3)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저임금 비중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3
여성 취업자 전체	41.5	41.7	40.0	42.3	39.6	39.1	39.8	34.5	38.6
공공행정서비스	31.2	33.1	27.6	32.4	28.8	45.7	43.3	38.3	35.8
교육서비스업	16.6	18.4	17.6	19.0	18.4	16.9	19.2	15.5	17.9
보건업					20.5	19.6	20.5	15.6	19.8
사회복지업					39.4	39.5	42.6	37.0	42.4

주 : 1)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임.
 2)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3) 2004~2011년은 각 연도 8월 기준이고 2012년은 3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2012년 3월.

〈표 10〉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2011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여성 임금근로자	57.4	59.3	56.0	55.2	55.8	35.0	46.7
공공행정서비스	66.3	69.7	47.7	56.1	55.2	51.3	61.3
교육서비스업	66.1	66.9	49.5	62.8	59.5	47.0	58.5
보건업	92.9	93.7	92.4	89.8	84.9	50.9	75.2
사회복지업	74.6	77.1	76.7	66.5	56.5	22.2	43.1

주 : 1)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계산하고, 지역가입자나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함.

2) 고용보험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함.

자료 : 통계청(2011.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근로복지 중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는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보다 낮은 수준임.

-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의 연도별 차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추세를 보임.

사회서비스업 국제비교

-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터키(13.1%) 다음 수준임(표 11 참조).

〈표 11〉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2008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한국	14.7	10.1	21.1
터키	13.1	11.9	16.6
스페인	16.9	11.6	23.9
이탈리아	17.4	12.0	25.0
포르투갈	18.4	12.0	25.7
그리스	20.1	15.4	27.0
폴란드	18.4	10.2	28.3
오스트리아	20.8	13.5	29.4
일본	20.0	13.2	30.1
헝가리	21.6	12.9	32.1
독일	23.0	14.8	32.9
호주	23.8	13.8	35.8
뉴질랜드	23.6	12.7	35.9
아일랜드	21.7	10.7	36.9
프랑스	27.4	17.2	38.6
미국	26.3	14.8	39.3
핀란드	26.2	12.2	41.4
네덜란드	28.9	17.0	43.1
벨기에	29.7	18.6	43.4
영국	28.7	16.0	43.5
덴마크	30.7	16.4	47.0
스웨덴	31.9	14.9	50.9
노르웨이	35.0	18.6	53.4

주 : 1)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으로 한정함.

2) 그리스, 폴란드는 ISIC-Rev.4, 그 외 국가는 ISIC-Rev.3 기준임. 한국은 제9차 표준산업분류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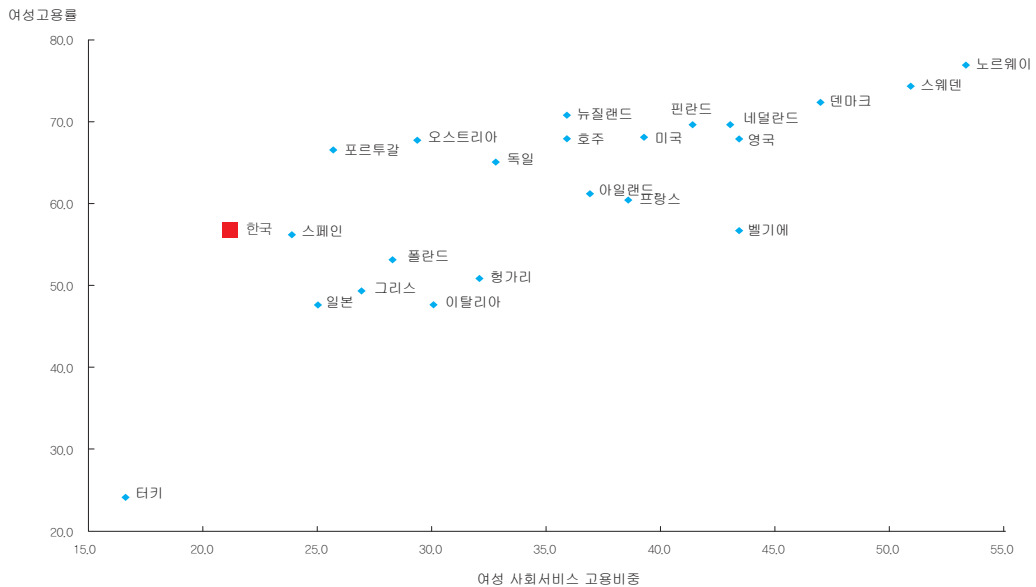
3) 덴마크(2002), 영국(2006), 아일랜드(2007)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08년 기준임.

자료 : ILO, <http://laborsta.ilo.org/>

-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10~19% 수준으로 국가 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큼.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국가는 여성고용의 다수가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터키 다음으로 낮아서 20%(2008년 기준) 수준을 넘는데 불과함.
- 복지국가의 발달정도와 사회서비스업 부분의 여성 참여는 여성고용률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선진국의 예에서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 증대가 곧 여성고용의 증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줌(그림 2 참조).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고용률과 낮은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을 보임.
 - 양질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업의 확대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그림 2]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단위: %)



주: 1)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포함함.
 2) 그리스, 폴란드는 ISIC-Rev.4, 그 외 국가는 ISIC-Rev.3 기준임. 한국은 제9차 표준산업분류를 따름.
 3) 덴마크(2002), 영국(2006), 아일랜드(2007)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08년 기준임.
 4) 여성고용률은 OECD,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ILO의 자료를 이용함.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OECD, <http://stats.oecd.org/>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 02-3775-5583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